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援蔣國家의 排擊

— 外交轉換의 時期 —

一

支那事變勃發以來 支那를半植民地로 만들고 政治的經濟的權益을 享有하여 支那四億大衆의 膏血을 吸收하던 歐米의 一列國家들은 일이잇슬때마다 權益擁護의 口實下에 陰으로 陽으로 蔣政權의 援助를 實行하여왓다。그中에도 尤甚한國家는 英佛米의 西個國으로 或은 蔣政權에게 그레디트를 設定하며 或은 軍需資材를 대여주며 或은 帝國政府에 抗議를 提出하며 或은 皇軍의 活動을 妨害하는등 가진 各色으로 重慶의 抗日戰爭을 援助하여온것이다。這回의 歐洲戰爭에서 英佛의 大敗로 世界情勢는 一大轉換이 되게되고 佛國은 獨逸軍門에 白旗를 들고 降服을 맞치게되어서 問題될것도 업게되엇거니와 英國은 依然히 抗戰을 繼續하다고하므로 自國防備에도 我不暇이라 極東問題에 容喙할수가업는 形勢이다。그러므로 英佛의 援蔣은 今後 帝國外交의 積極性如何로는 實力發動을 기다리지 안허도 阻止할 可能性이 充分한것이다。

二

事實上 英佛의 援蔣루ー트는 佛領印度支那로 부터 滇越線을 經由하는 路線과 및 香港으로 부터 九龍半島의 奧地에 通하는 二線이 잇섯다 그리고 租界에서 行하는 援蔣工作을 加設하는것이 一個의 援蔣的事實이엇다。安南루ー트는 帝國이 資材輸送의 檢查員을 派遣하기로되엇스나 事實上 閉鎖가 된것이오 香港루ー트도 皇軍의 英支國境占領으로 完全閉鎖된것이다 그리고 天津租界 隔絕問題의 解決과 上海租界의 [illegible] 等으로因하여 完全히 援蔣工作도 根絕될날이 멀지아니하엿다 다만問題는 英國이아즉도 間接으로 援蔣의 行爲에 나올는지 알수가 업다 그러므로 이點에 關하여서는 帝國外交의 積極性에 期待가 적지안흔것이 잇다고할것이다。

三

英佛兩國이 이와가튼 處地에 잇슴으로 더말할것이 업거니와 남은것은 即 蘇聯과 米國의 援蔣事實이다 蘇聯은 [illegible] 을 通하여 支那의 赤化에 及하여왓거니와 事變中에도 張鼓峯事件과 노몬한事件을 惹起하여 積極的으로 蔣政權에게 援助를 주엇슬뿐아니라 支那共産黨을 그爪牙로 하여서 抗日戰을 繼續케하고 飛行機 戰車等의 戰爭資材를 所謂 西北루ー트를 經하여 供給할뿐아니라 甚至於 多數軍官을 派遣하여 直接戰爭을 援助하고잇다 米國도 亦是 桐油借款等 巨大한 資材를 重慶政府에 提供할뿐아니라 일마다 抗議 其他形式으로서 事變處理와反對方向으로 움지기엇고 最近까지 하와이 眞珠灣에 太平洋艦隊를 集結하여 無言의 威脅을加하고 잇섯다 그러나 歐洲民主主義國家의 敗滅에對하여 米國은到底히 孤立主義의 態度를取하지 못할것이요 大西洋의關心은 太平洋의比가아니다 따라서 米國이 아무리하여도 極東問題에 熱中치못할것이다 蘇聯도 近東과 발칸問題를 [illegible] 하여 黑海沿岸의 諸問題가 直接關係가 巨大한이만치 支那問題에 큰힘을쓰지못할 것이다 이게제에 當하여 帝國外交는 果然 積極的活動을 할 段階에 到達하엿다 即事變處理를 目標로 援蔣諸國을 排除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重慶西郊嘉陵江岸 政府、軍事機關猛爆

海軍航空隊十八回空襲

【漢口二十八日發同盟】中支艦隊報道部○○基地 二十八日午後八時發表 本日海軍航空部隊는 第十八次 重慶爆擊을 敢行하여 內外의 軍事據點을 爆碎하고 敵機一機를 擊墜하엿다

【○○基地二十八日發同盟】海軍航空隊 安達、瀨戶、岩谷等各部隊는 二十八日午後二時三十分 第十八次 重慶空襲을 敢行 地上砲火를 무릅쓰고 同市 西部自來水池(水道貯水地)及神泉洞附近 敵軍事施設을爆擊 大火災를 이르키고 敵十數機와 三十分에 걸처交戰 E十六型一機를 擊墜하엿다 그리고 鈴木、石橋、奧山、森田、三原、多田、增水、中村各部隊는 重慶西部 嘉陵江兩岸의敵、政府機關及軍事機關等에 痛烈한 攻擊을加하여 火災를 이르켜 數個所를 炎上케하엿다

皇軍憑祥에 肉迫

佛印國境線上의 要衝

【南寧二十八日發同盟】寧明을奪取한 岡本、森本、高橋의各部隊는 廿八日朝來 佛國境에가까운援蔣路의 要衝 憑祥(寧明西方卅五키로)에 肉迫, 果敢한猛擊을 加하고잇다 我部隊員의 到着을 앞두고 佛印援蔣루ー트의 完全遮斷은 이제目睫間에 切迫하엿다 一方 [illegible] 部隊는 [illegible] 山間에 泥濘을 무릅쓰고 [illegible] 所에서 擊破하면서 龍州에 猛進하고잇다

民營貨物保險料引上

【東京電話同盟】民間貨物戰爭保險委員會는 二十八日東京 海上本社에서 緊急委員會를 開催하고 太平洋, 印度洋海面에서戰爭危險의 增大에對處하기爲하여 民營貨物船 保險料率(國營再保險에 [illegible])을 左와如히 決定 來七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歐洲諸港及 地中海沿岸諸港 [illegible] 個個의 境遇에 對하여 料率을決定하기로되어 事實上 引受拒絕同樣의 狀態로되엇다 改正料率은 如左하다 (括弧內舊率)

一、北米、中米、南米 太平洋沿岸諸港及 新嘉坡以西의 海峽植民地 蘭領印度諸港 新西蘭諸港 日本船積六十錢(四十錢) 其他一圓二十錢(八十錢)

二、新嘉坡以東(新嘉坡를除함)의 亞細亞洲諸港(但支那各地를除함)及 南洋諸島 比律賓諸港 三十錢(二十錢) 六十錢(四十錢)

三、北米合衆國 太平洋岸布哇南洋委任統治領諸港 香港 마카오 二十錢(十錢) 四十錢(二十錢)

四、北米合衆國 大西洋岸 諸港(파나마經由) 但中南米又는西印度諸島諸港에 寄港할時는 更히 割增料를 徵收안홈 一圓(八十錢) 二圓(一圓六十錢)

五、其他區域 一圓五十錢(一圓) 三圓(二圓) 그리고 紅海沿岸(아덴을包含)赤道以北의 阿弗 [illegible]

蘭印產物資確保

兩國間大體意見一致

外務省情報部長談發表

【東京電話同盟】日蘭印間의 交涉中이던 日蘭間의 [illegible] 問題에 關하여는 이지음兩國間에 大體로 意見一致를 보앗슴으로 谷次官은 二十八、九日午後三時 파브스트和蘭公使를 外務省으로 招待하고 最後的協議를 하엿다 右에 關하여外務省은 左와如한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엿다

情報部長談 有田大臣은 일즉 東亞의平和及安定을 維持하는 見地에서 帝國政府는 蘭印의現狀에 어떠한 變更을 招來할 事態가 發生하는데 關하여는 深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는것을 中外에 聲明하엿는데 右는 勿論 政治經濟等 各般의 問題에 對하여 帝國政府의 所信을 披瀝한것으로 爾來帝國政府는 右에基하여 和蘭과 貿易、企業、入國等諸問題에對하여 交涉을 [illegible] 帝國은 日蘭印間의 緊密한 貿易關係의 維持增進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는바로 그圓滿한 解決은 日蘭印間 有無相通의 關係의 [illegible]

滿鮮貿易經濟懇談

【新京二十八日發同盟】滿鮮貿易經濟懇談會는 二十八日 午後一時부터 日滿軍人分館에서 開催 新京商工會 副會長其他 多數業者出席、滿洲國側으로부터 關東軍三宅少佐、國務院 池田參事官、經濟部石渡外事科長、齋藤商事科長、興農部富田農業科長、新京商工公會副會長、石崎商工科長、生必會社 木村理事、其他朝鮮側으로부터 總督府田中外務課長、朝鮮貿易協會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出席 [illegible]

[illegible]

滿洲國 熱河省도分割

【新京二十八日發同盟】滿洲國 [illegible]

文武百官御招待

盛大한御晚餐會

【東京電話同盟】我政府主催의奉祝 [illegible] 植田前關東軍司令官 [illegible] 皇帝陛下께옵서는 [illegible]

皇太后陛下御主催 御招待宴에臨御

【東京電話同盟】皇帝陛下께옵서는 宮中公式御訪問、東京에서 [illegible]

皇帝陛下御寄贈

銃後事業資金으로

【東京電話同盟】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는 今回御來朝를機로 我銃後援護事業及 社會事業의 資金으로 金二十萬圓을 御寄贈하옵섯다 石渡內閣書記官長은 二十八日午後三時 御宿舍赤坂離宮으로 가서 이를 拜受하엿다

閑院總長宮殿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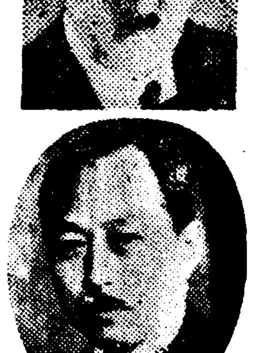
新聞通信代表御召集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北國新聞 北海타임스 同盟通信社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中外商業新報 大阪朝日新聞 大阪每日新聞 河北新報 福岡日日新聞 讀賣新聞 名古屋新聞 京城日報社 國民新聞 神戶新聞 高知新聞 合同新聞 秋田魁新報 旭川新聞 九州日報 新愛知新聞 信濃每日新聞 [illegible]

獨總統과重要會談

外相、佐藤大使에訓電



【東京電話】訪伊經濟使節團長 佐藤尙武大使는 日前 그使命을 마치고 伯林에到着하엿는데 有田外相은 同大使의 二次에걸친 伊太利首腦部와의 會談에서의 政治的收穫을 [illegible]

共和黨候補者 윌키氏를指名

【필라델피아二十八日發同盟】二十七日의 共和黨大會에서 [illegible]

獨、長距離機製造

【伯林發同盟】獨國內의 飛行機製作工業은 [illegible]

春蠶收繭豫想 前年보다減少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 [illegible]

自主獨往外交方針

廿九日外相放送

【東京電話】지난十八日의 [illegible]

滿拓鮮拓統合

調査委員會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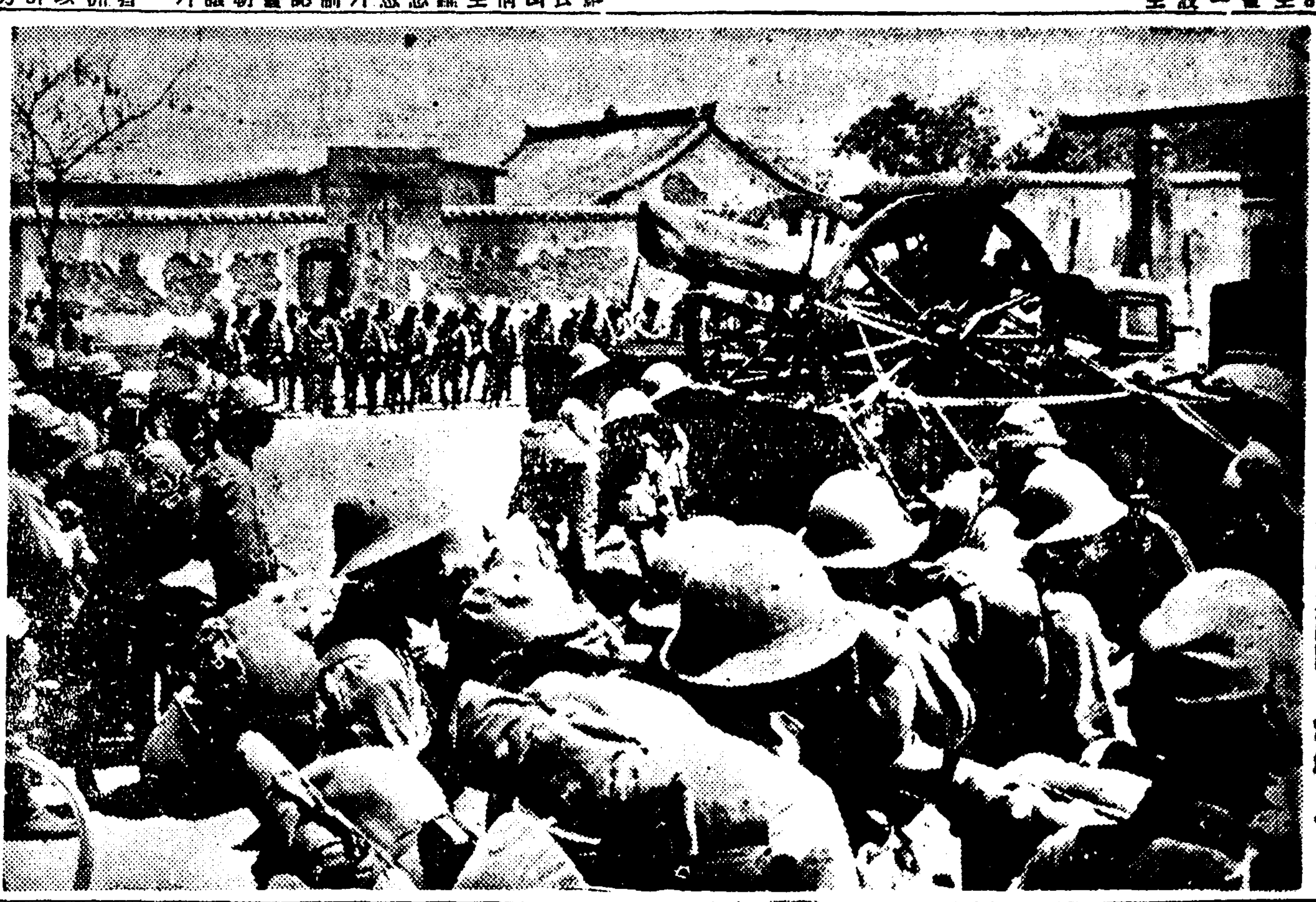
【新京二十八日發同盟】 [illegible]

西原少將一行臺北着

【臺北電話同盟】 [illegible]

노몬한視察코 前田利爲侯來京

[illegible]



…○○를出發 勇躍戰線으로向하는 ○○部隊의 情況…

援蔣輸送禁止問題로

크英大使谷次官訪問

【東京電話同盟】지난二十四日外務省을 訪問하엿던 크레기 英大使는 [illegible]

監稅員第二陣出發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市況(廿八日) ◆生絲後引◆

顧問官會議開催코

輸出振興策協議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吳建博士急逝

【東京電話同盟】東京帝大敎授醫學博士 吳建氏는 二十七日夜 [illegible]

社大黨解黨聲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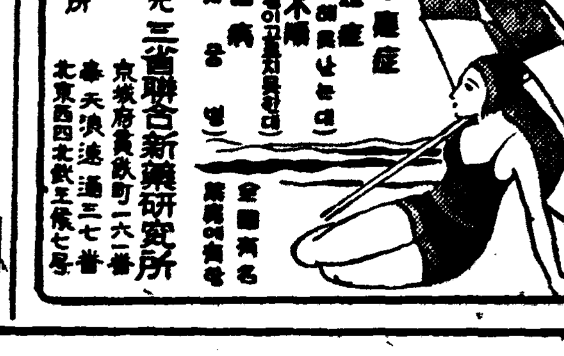
七月六日正式解黨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에서 [illegible]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健藥 京城府 [illegible] 百補丸 百補丸 [illegible]

効力本位 [illegible] 肩腰의결림 류ー마치스 過勞의아픔 胸咽喉之痛 定價 [illegible] 名藥店에有함 本舖 東京市麻布區 [illegible]

頭痛에 テーリン テーリン의效力은…… 頭痛、感氣、현기증을 速히 解消할뿐아니라 常用하면 腦神經의 榮養을도와서 明朗하게하며 强心作用이 잇슴으로 心臟을 强하게補하는 優秀한 效果가 잇슴니다。一般解熱劑나 頭痛藥과 相違하야 全然 胃腸等을 害하지안는 理想的 頭腦良藥입니다。 其他神經衰弱、不眠症 宿醉、感氣、船車之醉 定價 [illegible] 製造元 東京市 [illegible] 中村信治商店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北鮮代理店 株式會社 清津 新井藥房 全鮮各藥店에잇습니다



부인병 영약 三省調血精 [illegible] 不姙症 月經不順 子宮病 發賣元 三省聯合新藥研究所 京城府 [illegible] 出張所 [illegible] 全國有名藥房에有함

빠쓰、急行列車에衝突 乘客廿三名卽死傷

新義州麻田洞의惨事、禍因은調査中

【新義州電話】 이십팔일 오전 하 서 (新義州)에 평북(平北)… 북선 (北鮮) 「빠쓰」 …가 신의주(新義州)에 …의 …북에서 추 …차가 … 빠쓰 …

遮斷機關係? 運轉手金炳喆談

내가 철도 건널목에 다다렀을 때에는 차단기는 내리지 안햇섯다 그러므로 철로안으로 드러섯는데 …

未安千萬 平北警察部長 岡部氏談

惠山鎭機關區 無事故表彰

防空模範街區

防火、防毒、警報燈管三區로府當局이設定

◇防火街區

嘉會町、竹添町三丁目、旭町一丁目、練兵町

◇防毒街區

嘉會町、竹添町三丁目、旭町一丁目

◇警報燈管街區

嘉會町、竹添町三丁目、旭町一丁目、櫻井町、新堂町、櫻ケ丘、昌信町、練兵町、元町二丁目、黑石町、永登浦町

北鮮線引繼式 七月一日擧行

북선철도선 상삼봉(上三峰)청진(淸津)및 회령탄광선(會寧炭礦線)은 칠월일일 오전열한시에 청진역에서 거행하기로되었다

"얼어붓튼"味覺

사과한개五十錢也

昨日南大門市場의脫線時勢

都市對抗씨름

各地方의不敗力士 百三十餘名參加

壯觀이룰七月一、二兩日의熱戰 戰前長安의人氣沸騰

本社後援

◇一般바른씨름部

◇一般왼씨름部

◇中等왼씨름部

어린이들에게도 防空思想普及

防空讀本을編纂無料로配付

엇기힘든"세멘트"

品貴原因은小賣商의弄奸까닭 當局第一期부터嚴重監視

南洋에着目하라"

共同租界에金玉均氏記念碑建立計畫 上海朝鮮人民會李甲寧氏談

比島競技大會 選手團派遣決定

佐崎TKO勝 對中村八回戰에

大陸에의스포ー츠遠征禁止

兩軍鐵壁陣 東京一般部學 生陸上競技會

比島庭球選手大 連에서模範개임

마크닐選手勝捷

世界水上三傑表彰 伯林大會以後優秀者

撫順炭鑛爆發事故

禮山郡下에 鷹窒扶斯猖獗

藥劑師試驗 實地試驗合格者

今日天氣…曇時時晴…

부인병은여러말하실것업시 와세돈球로치료해주십시요

부부가서로협력할은 가정평화의근본

부인병알는안해가 남편에게대한불평

부인병이원수이다

남편이부인병알는 안해에게대한불평

주문은속히하시라

藥價 十二球入 一圓二十錢 廿四球入 二圓三十錢 卅六球入 三圓四十錢 百四十四球入 十三圓

東京市芝區西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全國帝大病院使用 와세돈球

キンメ入持の一番よい 安住かとり線香 猪印 皇軍慰問品の一等品 銃後の保健衛生に 安住大藥房

べービー散 뻬ー비ー 小兒第一의 설사、잘는듯 와理想的消化不良藥입니다 定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京城・淸津・鏡新 井藥房

淋治內服特效劑 チユ・サイド G-U-CIDE

中部版

江華人蔘組合 第九期總會

[江華] 강화인삼조합에서는 지난이십칠일 당조합사무실에서 제구기총회를 이사김〇〇씨사회로개최 조합장 [illegible] 부의사항 [illegible] 무사폐회하엿다

農繁期의 托兒所 四十個部落에 設置

江華郡農振委員會서 決定

[江華] 강화군에서는 지난이십칠일오후 다섯시에 군수관사에서 군농촌진흥위원회(郡農村振興委員會)와 군연맹이사회(郡聯盟理事會)를 개최하고 농번기인 지금에 유수한농촌 사십개부락에 탁아소(托兒所)를 신설할것과 [illegible] 협의가잇섯스며 [illegible] 지도반(移動指導班)조직건에잇서 [illegible] 사변기념일 행사에관한것과 [illegible] 저축장려에관한건등을 결의한 후 [illegible]

劍道優勝祝賀會

[汶山] 도변파주서장(渡邊坡州署長)은 착임이래 서원일동에게 무도정신을 일층고양하고 [illegible] 경기도지부주최 제삼회검도대회에서 파주 [illegible] 우승 [illegible]

鱗翅幼虫이 繁殖

"朴淵"名勝을 蠶喰

洞口의 數千株櫻樹가 枯死狀態

[開城] 바야흐로 녹음이욱어지고 나무잎은 [illegible] 잠식하여 [illegible] 박연폭포 [illegible]

盈德郡에서 教育硏究會開催

[盈德] 경북영덕군교육연구회에서는 매년춘추(春秋) [illegible]

厚灘强盜 安州로 遂送局

[舍人] 평남안주군 [illegible]

唯一한驅除方法은 石油乳劑와 捕虫綱

松都中學教諭 石宙明 氏談

이번레는 [illegible] 나비(蝶) [illegible] 석유유제(石油乳劑) [illegible]

六十老婆가 行方不明

[仁川] 유선로파가 행방불명 [illegible]

여름의 浦口 (鏡江)

廣木等綿布類配給

仁川府서 도廿八日부터開始

[仁川] 인천부내의 각포목점에 정하여 인천부산업과에서 지난 [illegible]

公定價格 上廣木一碼 三十九錢 內″″ 三十二錢 粗色上廣木一碼 五十二錢 ″內″ 四十四錢

唐材의 輸入制限으로

各種漢藥이 品不足

仁川府內의 需要者들悲鳴

[仁川] 인천부내의 한약방의한 초재는 최저가 상해로부터 [illegible]

上唐木 ″ 三十八錢 內″″ 二十七錢 玉唐木 ″ 四十五錢

各飮食店에 通告

時間嚴守酌婦制限을

[蘇萊] 소래경찰관주재소에서는 [illegible]

聖戰眞意를闡明

仁川府七·七記念日行事準備

[仁川] 오는 칠월칠일은 지난사변 [illegible]

貨物自動車가 街路樹와衝突

[仁川] [illegible]

惡德商嚴重取締

仁川署員總動員으로猛活動

[仁川] 인천서경제계에서는 [illegible]

寧邊禮拜堂增築

八千圓工事費로

[寧邊] 영변읍에잇는 서부예배당 [illegible]

仁川府儒道會

結成式盛大히終了

[仁川] 인천부에서는 황도정신 [illegible]

棉肥培管理 督勵

[忠南文社面] [illegible]

信川郡農會 春繭共販開始

[信川] 신천군농회에서는 지난 [illegible]

共同販賣場所 [illegible]
春繭價格 [illegible] 九、〇五 ... 五 一等 七、六六 二等 八、三六 ... 九六 三等六、二六 四等五、五七 等外四、八七 ... 五〇 玉下四、一〇

抽籤券 一等 一名 黃牛一頭 二等 一名 豚一頭 三等 三名 삽 一丁式

販賣期間 自六月二十日 至七月十日

神谷內務部長 移秧狀況視察

[金浦] 지난이십칠일오전아홉시경 [illegible]

自家用大麥外엔 全部共販에出廻토록

金浦郡當局의食糧確保策

[金浦] 김포군에서는 식량확보 [illegible]

蘇萊엔雨量不足

面當局서代用作稽極獎勵

[蘇萊] 장기한발이 계속하다가 [illegible]

移秧完了督勵

[忠南文社面] [illegible]

仁川府勢振興會

會長選任을討議

[仁川] 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illegible]

新築中의小學校舍 暴雨로崩壞

[木浦] 목포산정(山亭)소학교를 [illegible]

山淸郡大麥凶作

[晋城] 산청지방에는 [illegible]

朝光七月號絕版在邇

누구나新鮮實益의이한卷을備置하라

定價 四十錢 朝光社發行 振替京城三二七一一番

長篇小說

青春茂盛 (92)

李泰俊 作
鄭玄雄 畵

최독주의것는길(二)

『웬일이세요?』
득주는 책상에서 일어나며다른 책상에 그를 맞는다。
『웬일은? 좀 오는사람을 가지구……』
『취해 오시니 말야요?』
『엥끼임(연희) 혼자세요?』
『혼자 빠저왓지』
『왜요?』
『이이 몰려서』
하고 그는 쇠소리나는 강경한 목소리로 웃는다。
『인요?무슨?』
『다마짱 보구픈』
『아수 말솜씨가 느셧네!』
『다마짱두 만히 늘엇지』
『제가 늙긴 왜 늙어요』
『써비쓰가』
『이만콤두 모험 어떠케 배겨요 이런데선』
『그래두 아직 멀엇서……』
하더니 득주의 손을 잡는다。아직 멀엇다는 말에 자극이되어 득수는 손을 잡히채 그냥 둔다。

너의 그드리운 치마자락으로 우리의 저울을 가리우잔님」
『참 조용네요! 그런데 선생님』
『응?』
『오썸 시를 다 그러케 외세요?』
『난 예술도 몰르는 야만오루 아나?』
『아니』
『그럼?』
『돌 경제왕대니 에꼬노미스트니 그런 책만 가지구 다니시지 안엇세요?』
『자헌 박네…다마짱』
『왜요?』
『다마짱 볼이 통이뭐가?』
『이통입세요』
『학교?』
『학교안 다녓세요』
『절대비명이가 모두?』
『나 학교 다니던사람가터 뵈요?』
『다녀서두 전문이상』
『참각…인지모르죠』
『내 감정(鑑定)이 틀리는법엽지나 감정으루 먹구사는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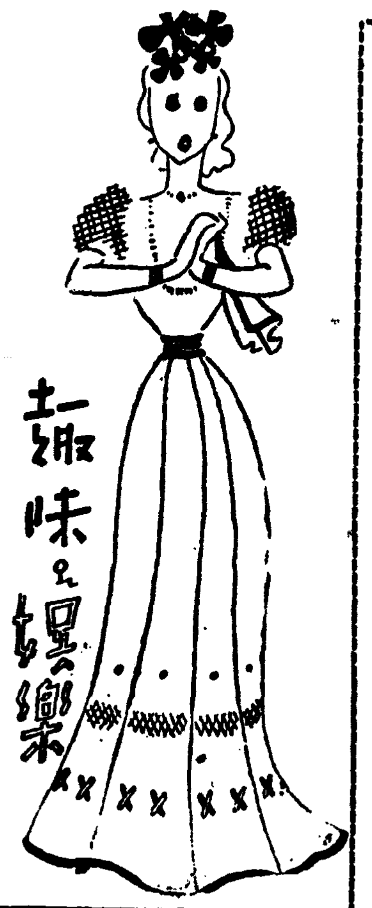
『네손도 거칠고?』
『아니……』
뽀오이가 왓다。득수는 으레하는 순서로 그에게 한잔 권하고 자기도 한잔 바더놋는다。그리고 맥수를 가저왓다。손님은 맥수 한잔을 쭉욱 드려키더니 고개를 약간 뒤로 젓기고 문에 옴겨다 심은 파초를 물그럼이 본다。보더니 말파는 다른 어조로,
『조국을 언제 떠낫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한다。
『아、훌륭헌시!』
하고 득수는 놀란다。그리고
『선생님 지금 직흥(直興)이세요?』
묻는다。
『아―니, 그럼 내가신이게… 김동명이란이 시지……』
『어쩜!끗까지 읽어보세요?』
『한잔 더 먹구……내가 다읽는지……』
한잔 다시 마시더니 입을다고 읽는것도 아니요 읇는것도 아니게 계속한다。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렬의 여인
나는 샘물을길어 네발등에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머리마테잇게하마。
나는 숭겨 너를 위해 종이되련다。』

『참선생님은 성함이 누구세요?』
『나 성은 무 이름은 명씨』
하고 유쾌한듯이 웃는다。득수는 그의문문를 락따리고 이런 문답이다。북길어다는 듯이 그리고 기분이 울적할때마다를 휘 일어나 흥을기로 간다。어붓는『왈쓰(圓舞曲)』을 걸어노핫다。
이날밤 칠초손님은 이 자칭 무명씨였다。무명씨는 득주가
『이전 문을 다들 테니 그만 가 즈므세요』
하니까야 한시나 돼서 나갓고 나가서는 약속이나 한것처럼득주가 나오기를 골모에서 기다렷다。
『다마짱?』
『웬일이세요?』
『내 바래다주께』
『괜찬어요 멀지 안은걸요』
『그럼 가치 거룹가?』
『어서 염려마시구 가세요』
『택씨두 지나가는게 업구…택씨 붓들때까지 가치갓지』
하고 그냥 따라온다。득주는겁이 왈칵 난다。손님을 쭉아본다。손님도 마조 본다。손님의 얼굴은 싸늘한 새벽바람에 술끼가 말끔히 것처있섯다。득주도 새정신이 퍼뜩난다。
『다마짱?』
『왜그리세요?』
『난 파초가 그리운 사람이야 난 늘 겨울에 사는 사람이야……내 겨울을 가려줄 파초가……』
하고、뽑떤 담배를 던지고밥는다。

스타 "人氣"와"中傷"

▼…배우와 인끼란 서로 띠어볼래야 띠어볼수 업슬 기분 인연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려온다。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또는 일만 이야기해도 새삼스러웟질수 잇는 이야기도 한다。
▼…말하자면 인끼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제약을 밧지안코 언제나 한결가치 배우생명인것이다。아니 어떠케 생각하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역여지는 것이지도 모른다。그래서 그런지 한번 인끼를 엇기는 무척 힘이들언도 그대신 한번 뚝 떠러지면 좀처럼 해서는 다시 회복하기란 어려운것이 아니다。어려우니보다 거의 불가능한것이다。
▼…그래서 제일 선전을 에잇서서 활발한 기능을 발휘하고잇는 『할리웃드』에 잇서서는 인끼업는 배우가 잇스면 시급히 인끼를 엇게하기 위하여 일부러 잇는소문 업는 『까십』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도 돌고잇다。
▼…물론 이러한것은 말하자면 체제올것이다。그래야…
▼…그러나 영인지 흥행…

雙Q生



"映畵法"의根本精神
業者의徹底한理解를要望

영화법(映畵法)에 의한 제작배급 사업의 정식허가는오는 시월일일까지 일반업자들에게 시달될터이나 내무성(內務省)에서는 방금 업자의허가신청서들의 첨부된 서류와 당국이 수집한 여러가지 재료에 의해서 전심으로 조사연구중인데 만약 이것이허락만될것가트면 동시에 제작본수에 대한제한도 자연이 따르게될것으로서 딴개당국에서는 방금여기에 필요한 조사도 하고잇는것이 사실인바최근만 하드래도 동경 일활(日活)에서일어난 촬영소장변동문제는회사의내부적사정이 설혹 다르다고해도 『역사』(歷史)의 흥행성적이 조치안흔데 딴관련된것가치、일반으로부터는 그러케인정받고잇슴으로 자연이 거기 따라 일활회사가 종래의 우수영화제작태도를 포기하고다만 영리주의로서 나아가는것가치 알게되엇던바、여기에서무당국으로서는 크게 자극을바더 제작배급사업의 허가방침에 딴해서도 극영화는 물론 문화영화에 잇서서도 업자가 영화법의 정신을 무시하고그뿐아니라 국가와협력하지안코 자기의 사업본만의이익만을 생각하는 업자에게 대하여는 상당히 중대한 압력을가할모양으로 의지안코나는의견까지 나와잇다한다。그래서오는 시월일일의 제작배급 두업면의 허가를가리어 영화계에는 상당히현상혁신이 일어나지 안흘까만큼된다는데 물론이의 여파가조선에도 미칠것은 말할것도업스리라한다。

揭示板

朝映『水仙花』 드디어封切決定

조영(朝映)의 『수선화』(水仙花)는 전부 완성되자 이의 봉절이 각방면으로부터 기대되어오던바 이미 평양(平壤)은 대중영화극장(大衆映畵劇場) 함흥(咸興)은 명보극장(明寶劇場)에서 칠월중순에 봉절하기로 결정하고 경성은 아직 미정이나 대개 경보(京寶)에서 봉절될듯하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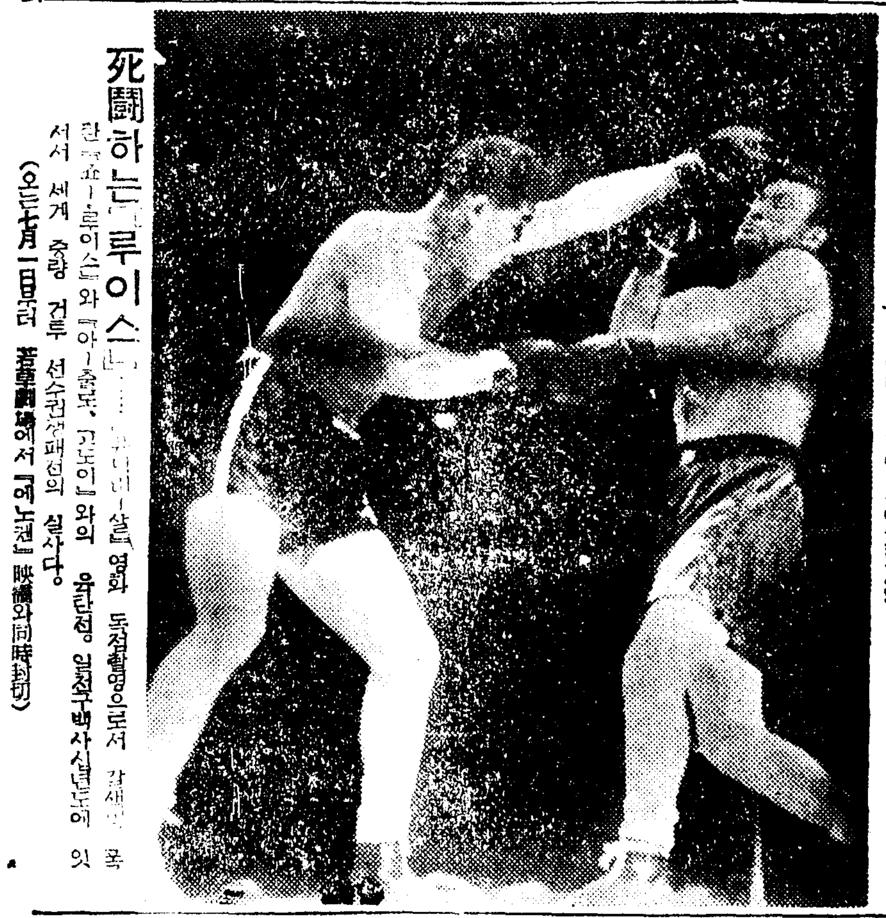
『太陽의아들』 高映에서企畫

부랑의 소년군을 수용하고잇는 부외홍제리(弘濟里)의 『가정학원(家庭學園)』 소년료(小年寮)를 주제로한 소위조선판 『태양의아들』을 일찌기 『수업료』를 발표한 고려영화사(高映)에서는 제작기획을 세우고 동사의 전속감독은 방금 『씨내리오』 제작에 대하여 협의중이라는바、하여튼 본격적 사회극영화로서 제작하려고 방금 준비중이라한다。

海外樂信

指揮者의휫소리 聽衆은拍手歡迎

(『퐈츠버―그』發同盟)『퐈츠버―그』교향악단(交響樂團)의 지휘자 『프리츠·레이너―』씨가 그야말로 헷소리를한사건이잇다。
▼……▲
『웨스팅하우스』고등학교의연주회에서 『레이너―』씨 『락크』를울리고 잇스려니까 밧딱 웰입인지 제일악장이 끗날때쯤해서는 『레이너―』씨의얼굴에는땀이 뻘뻘 흘리고한손에든 손수건에는땀이 흥건히고이어 짜게되엇고 목에두른 『칼라―』는 풀이녹아서 척 근천근하여 그야말로 열떼환자가치되고 말앗다。
▼……▲
청중들은 영문도 모르고이가 튼넘변에크게 감동되어 우리 가튼넘변에크게 감동되어…



死鬪하는「루이스」…

한국쇼―루이스』와 『아―츄로、갈보이』와의 세계 중량 건투 선수권쟁패전의 실사다。『루이스』 영화 독점촬영으로서 갑싼에 각서서 (오는七月一日부터 若草劇場에서 『에노켄』映畵와同時封切)

檢閱手數料免除映畵
每月平均三十本以上

금년 일월이후로 지금에이르기까지 총독부 영화검열실에서 영화검열수수료 면제된것은 극영화가 겨우 세개뿐으로서 그외에 문화영화와 뉴스영화까지를 가이시케가르면 한달에 평균삼십본이상에 달한다。여기에 극영화로서는
(一) 수업료(授業料)……(高映作品)
(二) 지원병(志願兵)……(東亞興業作品)
(三) 해군폭격대(海軍爆擊隊)……(東寶作品)
어상파가트며 기타 문화영화중의 중요한것으로서는
(一) 빼더가는조선(新興)
(二) 大帝都의建設(滿映)
(三) 新大陸(同盟映畵部)
(四) 水鳥의生活(理研作品)
대략 이상파가튼것을 들수가잇다。

스타―까십

朱仁奎氏의「殘滓」

지금은 주인규(朱仁奎)씨가 고향(故鄕)에서 연극을 하고잇지만 일찌기 영화배우로서 더 유명하다는것은 이미 잘아는 사실이다。그중에도 씨가 『아리랑』에서 고 나운규(羅雲奎)씨와 함께 상대역으로 출연하여 그야말로 악한역을 하여 인끼를 엇게된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그래서 어떤때 지방으로 도는중에 거리를 나가면 주씨를 보고 그저 악인이라고 ……이러케 아이들이 떠들고 ……

朴基采氏의어릿세(?)

이것은 지방에서의 이야기다。바로 서울에 나타나기전날 나가 전원에 행세하지도 씨는 어떠케되어서 여러어부터 보뜰 치켜올리고 하니(아이서부터) 우선 회고……이러케 가면 우선 회고와 「사쓰」 그리고 「흰」지고 바지 흰것도 「집신」이라 거듭 가지안코……이러케 다니다지를 했엇다한다。그러나 거리가 안하고 화려한 짝끼도 서 인끼를 얻어고 ——씨는

金泰鎭과 太乙民

지난번 조선일보(朝鮮日報)의 『고향』에서 그중에서 인끼를 어든 사람은 송래(宋來)씨 이 도필 김태진(金泰鎭) 이렇게 두분이었고 에어린아들을 돌로하여 손들도 한탁만하고 그중에서도 태을민씨는 첨예 배 찍인것이 태어나서부터 머리에 월고보니 다시 손하이 자작 한다면서 씨 『피―빈』 가왓을 때 서는데도 어떤 된다나―

幻影의馬車 (佛蘭西映畵) ❶

『듀―비비에』監督作品
主演…『루이·쥬―베―』

(解說)

★…『환영(幻影)의마차』는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작가 『셀마·라겔로프』 원작의 『사신(死神)의마부(馬夫)』를 영화화한것이다。
★…이 원작은 무성영화시대 『빅타―·시―스트롬』에 의해서 영화화되어 『영혼의불멸』이란 제명으로서 발표되엇스나 당시의 유명한 명화로 선이번에 귀재 『쥬리앙·듀비비에』가 재차로 영화화하여 이미 그전에 제작된영혼의 불멸』보다 우수한것을 만들게되엇다는데 이 영화의매력은 우선 걸려잇는것이다。
★…각색은 『듀비비에』자신이엇고 『세리후』는 『알렉산더―·아른두―』가 담당하엿다。
★…여기에 각각중요한배역을 떼마다가지고 등장하는인물는 현대 불란서영화계에서도 가장 인끼를차고잇는 재기발랄한 『스타―』들로서의 『루이·쥬―베―』가 제일연에서잇고 『피에―르 프레네이』와 『미슈리―느』

(梗槪)

이 이야기는 언해 겨울러시작된다。
어느노파한사람이 구세군의 접대로 인해서 모인 『룬펜』들에게 향해서별안간
『자、들어보아라、마차바퀴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안느냐?』
이러케 소리첫슬때 그들은 별로 그까짓 소리에 귀도 기우리려고도 아해지만 그중에도 특히 이노파의 말소리를 귀담아 듯는사나이가 잇섯다。
그 사나이는 『룬펜』들의 동무로서 『선생님』이라고불리우는 『쇼르주』라는 사나이엿다。
그는 그의 친구인 『다비드』와 『구스타브』에게이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작하엿다。
『나는 그전에、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잇는데 이 상하게도 이것만은 이저버리지안는다。이것도구픈마바퀴의 가운데 숨어서 부러저
프랑세이』 등이 등장하고잇다。그러니까 신인과 기성으로서엇기진용의 충실을도모하고잇는셈이다。

서 바퀴가 뒤흐들리고 기틀도 치지안하서 삐걱삐걱소리만나고 굴러가지안는 소리다。그러데 그마차에는 머리에 수건을푹 눌러쓰고손에는 낫을들은 마부가안저잇는것이다。그가곳 사신(死神)의심부름군인것이다。죽은사람의 몸건과 시체를 모으는것이 그의일인데 누구에게든지 이구르마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는 듯지 못는것이다。주검에가차운 사람에게만 이소리가 들리는것이다。그러니까 저할머니도 아마으름밤까지 가지 못할꺼야。나는 미신가는아니까 이런이야기는 밋고 십지는안타。그러나 이마차의 이야기만은 생각하면할수록 소름이 끼치거던―』
『오차넨 별소리를다 허네。』
『흥』여보게 금세 잠잠고 내 얘기만 들어보게 해마다 섣달그믐날 밤에 최후 종소리가 날때 죽은자가다음의 마부가 되어서 그마차를 부리게 된다는거야그래서 일년동안 그 마차를 부리는것이다。그러데 나는 해마다 섣달그믐날만 되면 어떠케될 노릇이지 으레껀

이 마차의 바뀌소리를듯게 된단말야。』
『그―자네가치 할일잇는사람이 그러케 허황된것을미더서야 되겟나 에이 시럽순사람가트니라구―』
『나는 무엇이든지 꼭크대로는 밋지안는 성미야그건 자네도 알지안나。엇다그까 지것은 아모러면 대수가 우리 한잔먹으러나가세。』
『그래 그게 더조혼이。』
×
『크리스마스』의 전날밤。구세군에서는 여사관의 『에디쓰』의 지휘에의해서 빈민가의 『룬펜』들을 수용하는 숙박소가 겨우 준공되어 지금은 다만 그 개원을 기다릴뿐이엇다。
×
언제나 다름업시 『룬펜』들은 오늘밤도 술이몹시취해서 기세를 올리고 잇섯다。
그런데 어떠케 무어이동기가되엇는지 『쇼르주』가그곳에잇던 사나이중에서 한사람과 말다툼을시작하엿다。마침내 싸움은 커저서『쇼르주』는 가엽게도 칼에 찔리어 그곳에 정신을 일코넘어지게된다。
×
가치 술을 마시고 잇던 『다비드』는 공연히 여페잇다가 다치면 재미업다고 생각하고 어디론지 뛰어서 어느틈에 숙박소로 들어가다。여사관은 언제나다름업시 상냥하고 인자한얼굴로 그를 마저주엇다。

『나를 이 숙박소에좀 잇게해주시세요』
하고 애원하니까
『아 어서 들어오세요어서요』
하며 바겨주엇다。그리면서도、여사관는 그 사나이의 얼굴을 유심히 쏘아보는것이엇다。
『아 어디서 본얼굴이다。』
그는 그러케 생각되엇다。그러나 지금 이러케 가련한사태로 자기 아페 나타난 사나이를 도서히 집책할용기가나지 아햇다。
그러나 여서로 얼굴을 대하고 보니 이무리한의 얼굴에어딘지 질겁 꺾리어 들어가고잇는 자기를 발견할수가잇섯다。
『대체 당신의 직업은?』
『올지 인제부터 취조가시작되엇군요 흥、난、당신의 그말투가 비위에 맛지안는다말야 이 세상은 잇서도 저 세상이란 업는것이니까 난 이세상에서 내가 낡아잇는동안 향락하면 그만이거든―。』
『여보세요 그러케 마음에도 업슨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당신은 당신이지 금생각하고 잇는거와 가튼그러케 나쁜사람은 아닙니다。그것은 내가 보증합니다。두고보세요 당신은이제 얼마못가서 공우리들을 이해하게될테니―』
『에디쓰는 『다빗드』의거칠대로 거칠어진 마음을어떠케해서든지 바로잡아주리라 결심하엿다。

그래서 그날밤은 그냥숙박소에서 자게하두고 다음날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여젓다。
×
상처를바든 『쇼르주』는병원침대우에서 생사를 모르고알코잇섯다。
『선생님 나죽을까요?』
『천만에。염려마시요。내가 고처드릴께―』
『죽을테면 지금 곳 죽고십습니다。마차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십지 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겨우 일수일은 갓지만 그믐날 밤이되면 마차가 올것을 생각하고 한시도 가만히 잇지못하고 머리를 쥐쥐고 번민하는것이엇다。
『선생님、나를 죽여수세요 나를……』
하며 『쇼르주』는 미칠도시날뛰엇다。
그러다가 결국 『쇼르주』는 참지못하고 병원을 몰래 뛰어나왓다。
여기저기서는 예배당의 종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오고잇섯다。
어디선지 어런마차바퀴 삐걱 삐걱……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가타서 『쇼르주』는 얼른길에 귀를 틀어막엇다。
그리고그는 드디어 『환영의마차』의 마과가되지안흐면안될 자기의운명을 깨달엇다。(계속)

管絃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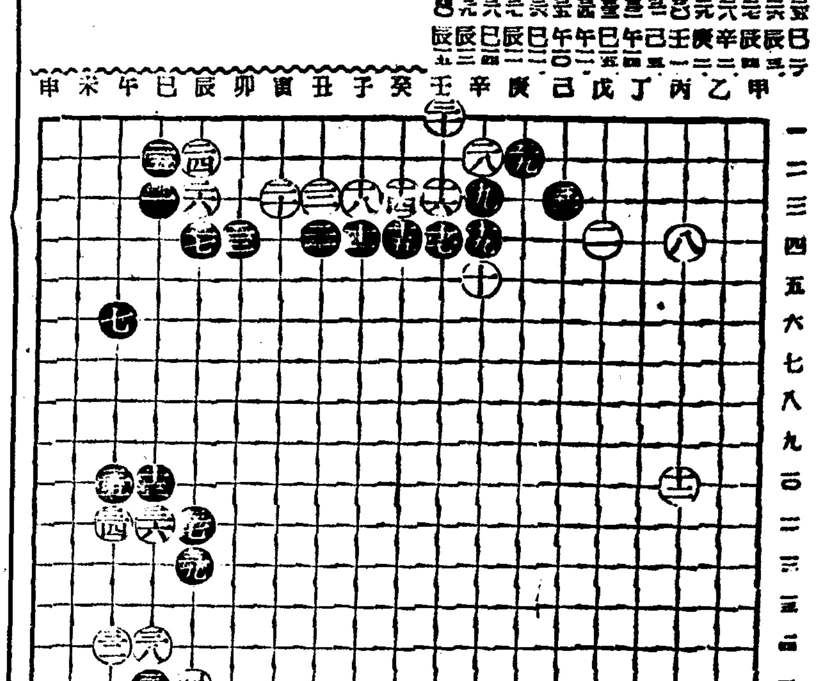
(二十九日午後八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만프렛트·구르릿트
一、交響詩『돈·환』 리하르트·슈트라우스作曲

한사람의부인에게 구하려고방황해다니는남자『돈·환』이데 특이한점이잇다。
二、交響詩『틸·오이렌슈피겔의惡戲』
리하르트·슈트라우스作曲 독일전설에의하면 십사세기에 살든이이잇서 별별작난을하고다니든끄데도디어 부잡어형되다하는 이야기는 독일서는어린애까지도알고잇는데 『슈트라우스』는이 『틸』의유쾌한 생애를 음악으로그려서 一八九五年에 이교향시를완성햇다。

▲名製作者「콕쓰」入社 (?)
『파』사와 『메트로』에서 만흔 작품을 발표하여 명 『푸큰서―』란 이름을날린『션―비―트』씨는 이십세기 『폭쓰』사에 입사하여 사십년부터 제일회작품은『크리―렌·B·키란트』의 장편『아름다움을 위해서』다。

黑外勢가鐵甕城
戰火는南中線에波及

【3】
白 任佑植 · 黑 金在琪



婦人時間
(二十九日午後一時十五分)
女性美二題(二) 女性과感情美
林學洙

한국에는 별이빗나고 바다에는 진수와 자개가 조흡고 사람의가슴에는 아름다운감정이잇다。그러나 모든사연이아름다운것중에서도 사람의감정만큼 아름다운것은업다。그러나 모든사연의 아름다운것중에서도 사람의감정만큼 아름다운것은업다。그는 인간생활의모든질서와 도덕을지배하는 인격을 연마하는것이 기대문이다。그러면 이아름다운감정이란무엇이냐。여기서 문학에표현된것을드러서 예증하는동시에 영국의여류시인 『크리스티―나·로제티』와 『뿌라우닝』부인의 시를 이상면니봉하려한다。

放送

二十九日(土)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分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오늘아러두실것
▲午後〇時〇五分 新民謠(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美二題(二)『女性과感情美』 林學洙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라디오스케취『시골소식』―洪銀杓作 梅香童劇會 指導 洪銀杓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週間情報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四〇分 傳道歌謠 一、龍念 二、六字박이 三、개고리打鈴 四、날개打鈴 白雲 朴錦
▲同九時 明治大正名作라디오文庫『男爵夫人』(四)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對外放送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咸興入中繼)
▲同一〇時 同(平壤)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十錢균서트 ▲同六時 童謠 ▲同七時四〇 二五分(東) 講演 ▲同八時一〇分 分 (東) 浪花節 ▲同九時四五分(東)

三十日(日)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分 宮城遙拜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 오늘아러두실것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살푸리 四、굿거리 細笛 李白善 大笒 方龍鉉 杖鼓 韓成俊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名曲鑑賞(레코―드) 一、中央亞細亞의 草原에서 보로진作曲 二、『牧神의午後』의 前奏曲 드뷔시作曲 三、西班牙狂想曲 림스키·코르사코프作曲 四、死의 舞踏 산·산스作曲 解說 朴慶浩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이날에생긴일 어린이 係
▲同六時五五分 產業뉴―스
▲同七時五分 修養講話 申興雨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鮮滿交換放送●
▲同八時 (滿洲로부터)滿洲消息(錄音、國語) (京城으로부터) 童謠와民謠 一、童謠獨唱 가、파랑새 나、서울구경 柳基興作曲 다、개고리 洪蘭坡作曲 라、햇비츤쨍쨍 同 京城放送童謠會 伴奏DK양상블 二、民謠合唱 가、興打鈴 나、배뱅이 同 다、豊年歌 합창 金聖泰編曲 指揮 金聖泰
▲同八時四〇分 伽倻琴散調 一、진양조 二、중모리 三、자진모리 丁南希 杖鼓 丁元燮
▲同八時四〇分 바이올린獨奏(平壤) 1、리이스의瞑想曲 마스네―曲 2、메뉴에트 보키리―니曲 3、아베·마리아 구노―曲 4、圓舞曲 비니아스키―曲 5、아라투―쟈 사라사―테曲 朴漢毅 피아노伴奏 阿部琦
▲同九時 明治大正名作라디오文庫『男爵夫人』(五) 金剛鎭 音響效果DK앙상블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 明日曆
▲同一〇時 對外放送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咸興入中繼)
▲同一〇時 同(平壤)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二曲 ▲同一時(東) 出征家族慰安 ▲同六時(東) 이야기 ▲同八時二五分(東)文化講座 ▲同七時四五(東)獨唱과二重唱 ▲同八時一五分(東)漫元 ▲同八時四〇(大)漫才 ▲同九時(大)音樂劇

中國映畵

▲大都映畵 松竹映畵『女性의戰場』(?) 日本『카―스』 『파라―·카―스』等
▲新興映畵 『支那의밤』 朝鮮 『手紙』(?) 등
▲東寶映畵 『女性의覺悟』 等
▲大都映畵 松竹映畵 『安來節』 東寶 『어머니』
▲松竹映畵 『大地의어머니』 (四幕五場) 朴新民
▲新興映畵 『御轉婆社長』 等

朝鮮日報

相信映畵館
一、日本뉴―스 二、滿映뉴―스 三、漫畵미키―마우스 四、森ノ愛情 五、櫻祭リ 六、バディノ戀物語 七、パラマウント뉴―스 八、大阪毎日バス畵報 九、同盟月報 라디오 시티 和田信夫

京城寶塚劇場 二十八日·二十九日二日間
ニュース 傳統歌り港 11·00 2·40 6·30
ユートラ總從軍つ 11·10 2·50 6·40
ヒット人まつ水 11·30 3·10 9·00
婦人櫻清水港 12·40 4·20 8·10
黃金座改め 1·00 4·40 8·30

東洋劇場 『大地의어머니』 四幕五場 朴新民作

劇團高協
夏期休暇中

明治座
24日ヨリ七月一日マデ上映時間表
日本ニュース 10·00 12·57 3·54 7·00
パテイニユース
女性の覺悟 前篇 10·26 1·23 4·20 7·33
女性の覺悟 後篇 11·32 2·29 5·26 8·39

第一劇場
六月二十八日ヨリ三日間
羅馬太平記
エディカンター主演
スーダン
船出は樂しい
岸井明 江戸川蘭子

京劇
廿八日ヨリ七月二日マデ
ニュース
安來節お秀
娘たづねて三千里
上山草人 山口勇

優美館
七月一日ヨリ
流血の市街
あきれた百萬圓
復讐の慘劇

若草東寶
6月24日よりの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2·05 3·30 7·00
オーケーシンギングチーム 12·25 3·50 7·20
支那の夜 10·00 1·20 4·45 8·15
御婦人の方は畫間を御利用下さい

新富座
ターザン猛襲
御轉婆社長
伸びゆく朝鮮

大陸劇場
6月27日―30日上映時間表
女だけの氣持 10·30 1·15 5·35 9·03
捕鯨炭燒く人々 11·53 3·38 7·10
新大陸 12·47 4·32 8·07
7月1日變番組

桃花劇場
妹の晴着
電話殺人事件
樂しき我が家